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김 영 희*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교 1,73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조사를 하였는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에 달하는 학생들이 부모에게 경증 또는 중증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감안한 때, 낮은 비윤이기는 하나 이 같은 결과는 부모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의 가능성에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결과, 청소년의 연령 및 학교 부적응, 부모의 불화 및 폭력정도, 청소년에 대한 폭력유무 등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확 또는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한 학생일수록, 부모의 불화가 잦으며 서로 폭력을 사용해 싸우는 정도가 높을수록, 또 부모로부터 매맞은 청소년들이 그렇지않은 경우에 비해 부모단 구타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 학교 부적응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폭력가정, 특히 부모에게 매맞고 자라는 가정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I. 문제제기

가정은 애정적 유대의 장으로 기능하는 반면에, 연령과 성에 따른 종적인 관계로 인한 갈등과 가족생활주기에 의한 변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간에 불만족스러운 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간의 역기능적인 관계형성은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가정폭력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서구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주제는 주로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에 집중되어왔다. 그런데 생애발달적 관점에 의해 가정폭력을 고찰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역동성이 변화하고 이와 더불어 자녀가 성장하면서 연령단계에 따라 세대간 폭력의 성격이나 영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 국립 환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교수

다. 즉, 아동기에는 부모에 의한 일방적 폭력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양방향적인 세대간 폭력의 학문적, 실제적 중요성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Harbin (1979) 등이 폭력가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관찰한 ‘맞는 부모 증후군’을 처음 보고하면서 자녀폭력이나 아내폭력과는 상이한 증상과 다이내믹이 부모폭력의 기저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전문가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전통적으로 ‘효’를 중시하는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폭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거나, 노출을 극히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정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해서는 그 실태 파악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는 부모에 대한 폭력행동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있어 몇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족내 폭력이 통제 *control*, 즉 권력의 역학관계 이슈가 근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녀의 부모폭력은 부모의 아동학대나 부부간 폭력과는 상이한 권력관계가 그 배경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권력의 불균형 상태에서 부모가 의존적 자녀를 학대하는 형태인 반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청소년 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내 권력관계의 위계가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상태라는 점이다. 대개는 부모가 지나친 음주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거나 자녀에게 어떤 행동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자녀들은 좌절과 분노를 형성하게 되고 자신의 분노를 충동적이고 폭발적으로 표현하면서 부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부모가 자신의 행동·태도를 바꾸거나 자녀에게 저증으로서 폭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습관화되는 소위 *habitual family transaction* (Harbin, 1979)이 관찰된다. 그 결과 많은 부모들이 무기력하게 자녀들의 폭력에 시달릴뿐 아니라 이후 부모-자녀관계에 장기적으로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폭력과 희생이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방안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대한 탐색은 ‘폭력의 세대간 전이’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Cornell & Gelles, 1982). 세대간 전이 가설은 어려서 가

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장하여 폭력적 부모·배우자가 된다는 폭력의 대물림을 주장하는 관점이다. 이 때 세대간 전이는 학습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그 학습과정을 아동기의 경험이 후일 자신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룰 때까지 억압되다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불연속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성장과정 중에 형제나 부모를 대상으로 일종의 연습을 수행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Cornell과 Gelles는 청소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이 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행동의 정도와 연관성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여, 어려서 학습한 폭력을 일정정도는 성장과정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연습하는 것이라는 연속적 학습과정 *continuous learning process* 관점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폭력을 배운 똑같은 장소에서 폭력을 행하기 시작하므로 방위가족에서 생식가족으로 폭력이 전이되는데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함은 아동학대나 부부간 폭력을 방지하는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부모폭력의 원인을 개인적, 가정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한다는 관점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행동 특성, 가족구조적 특성 및 부부간 폭력이나 자녀의 신체적 처벌 같은 역기능적인 관계를 관련변인으로 한다. 부모에 대한 폭력은 폭력행위가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신체적 폭력에 한정하기로 한다.

II.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 실태와 관련요인 고찰

부모폭력 행동이 가장 금기시되는 가정폭력 형태로서 최대한 은폐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의 발생빈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구에서 수집된 횡단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약 10%가 매년 그들의 부모를 구타하고 있는데, 그 사례 수는 약 250만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Cornell & Gelles, 1982; Peek & Kidwell, 1985). 더욱이 약 3%의 청소년들은 심한 신체적 폭력 *severe violence*을 행사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 구타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행해진 연구(Warren, 1978; Harbin & Madden, 1979, Fischer & Kidwell, 1985 ; Agnew & Huguley, 1989에서 재인용)들은 주로 임

상자료를 분석, 보고하는 내용이어서 표집의 크기가 적고,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다. 전국 규모의 사회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몇편에 불과하며, 기술적 *descriptive*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Straus, 1979; Peek & Kidwell, 1985; Gelles., 1980).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단적 조사를 수행한 Peek 등(1985)의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3년 동안 매년 조사 대상자의 7-11%가 부모 어느 한 쪽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5-8%의 응답자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2-6%가 어머니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gnew와 Huguley(1989)가 분석한 NSY *National Survey of Youth* 자료에 따르면 Peek 등(1985)의 조사결과보다 약간 낮은 빈도를 보여 지난 3년동안을 회상하며 나타난 부모에 대한 폭력율은 9.2%, 지난 1년간 폭력율은 5%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발생빈도는 상당정도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용납되기 어렵고 금기시되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임상연구들은 자녀로부터 맞은 부모들이 폭력발생 자체를 은폐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며 폭력의 심각성 정도를 축소하고 공격 도움을 거절한 다(Charles, 1986; Gelles & Cornell, 1985; Harbin & Madden, 1979)는 점을 이들 사례의 공통된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Agnew와 Huguley(1989)는 부모들의 이러한 반응이 자녀를 보호하려는 의도와 함께 부모역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가정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실증자료 없이 소규모의 임상자료에 의한 사례를 분석한 정도이었으나, 최근들어 보호관찰소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전희정·지영숙, 1999)를 비롯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두 편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전국 규모로 행한 이재규(1995)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8.9%가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1999)의 조사에서는 2.8%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에게, 또 6.5%의 청소년들이 어머니에게 폭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대표적 표집을 통한 실태조사가 계속 요구되는 바이다.

어떤 변수들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구의 연구들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Agnew와 Huguley 연구에서는 청소년 연령층 전반에 걸쳐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Peek 등(1985) 또는 Cornell 등(1982)의 조사결과와 반대의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Agnew와 Huguley의 결과에서도 15세 이상 연령이

증가하며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구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성 및 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 대한 폭력의 복합적 양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서구의 대규모 조사(Cornell & Gelles, 1982)에 의하면 아들이 딸에 비해 약간 더 많이 부모를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조사(김재엽, 1999)에서는 청소년의 성은 부모 폭력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딸이 아들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많이 구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국내의 실증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변수에 관한 고찰을 주로 서구의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 및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먼저, 청소년의 부모폭력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행한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경우 대부분 다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는 세대간 전이가 설은 그동안 서구의 많은 연구에서 대표적 표집으로 검증되어왔다(Kaufman & Zigler, 1987; Straus, 1986). 더욱이 폭력을 배운 똑같은 장소에서 폭력을 시작할 수 있다는 Cornell과 Gelles(1982)의 주장은 청소년 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을 세대전이의 연결점으로 지적하였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 경험이 부모에 대한 폭력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었으며(Kratcosky, 1984; Soong, 1997),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며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한 청소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부모를 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ratcosky, 1984; Kalmuss, 1984) 더욱이 우리나라의 실증연구(전희정·지영숙, 1999)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여러 가정환경 변수 중 폭력관찰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의 설명을 위해서 폭력을 유발하는 청소년의 행동특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gnew와 Huguley(1989)는 전통적인 가족폭력 이론에 청소년 비행이론을 통합하여 청소년 행동특성 변수를 만들어 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들은 부모폭력도 일종의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부적응 등의 행동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대규모 표집을 통한 그들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친구문제, 이성교제, 학업성적 불량 등 학교 부적응이 폭력을 유발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만의 실증연구(Soong, 1997)에서

도 청소년의 극심한 학업경쟁 및 학업관련 문제가 부모폭력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Soong은 일본의 부모학대 청소년들에게도 학업상의 압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Narita, 1994)는 보고를 인용하면서, 학업성취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유교 문화권의 부모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증연구에서는 부모폭행 가능성에 학업성적 저하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경험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을 좀더 구체적으로 학교 부적응의 여러 요인으로 구분하여 폭력여부에 대한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폭력과 관련되어 가족구조적 특성과 가족관계적 특성이 논의되고 있다. 가족구조적 특성으로 편부모가족이 부부가족에 비하여 부모구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Harbin & Madden, 1979), 이는 구조적·기능적 결손 논의에서 말하는 구조적 결손에서 파생된 기능적 결손의 파괴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부모가족에서 부모학대 발생률이 더 낮게 나타난 연구(Charles, 1986)가 있는가 하면, 체계적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Peek & Kidwell, 1985)도 있다.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또한 거시적 사회구조와의 관련속에서 폭력과 계층, 빈곤문제 측면에서 접근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이 가정폭력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은 빈곤의 범죄이다'라고 까지 일컬어지기도 한다(Foreman & Dallos, 1993). 그러나 한국 및 서구의 몇몇 실증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정도나 부모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1999; Soong, 1997). 부모에 대한 폭력의 경우 부모의 적절치 못한 행동 특성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설명되는데, 여러 임상자료에 의하면 폭력청소년의 아버지들이 알콜중독과 같은 문제적 특성을 나타냈다(Harbin & Madden, 1979; 이시형, 1997). 부모의 지나친 음주경향과 부모폭력의 유의한 관련은 대만의 실증연구(Soong, 1997)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가족관계적 특성으로 가정내 정서적 지지자의 존재가 중요 관련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은 여러 실증연구(Kratcosky, 1984; Peek & Kidwell, 1985; Soong, 1997)에서 유의한 관련변수로 밝혀져, 가족 응집성이나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가 높으면 부모에 대한 폭력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와의 애착정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특히 청소년기에는 역기능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Soong, 1997). 또한, 부부간 불화가 거론되어, 부부간 갈등이나 불화가 잦은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ratcosky, 1984; Soong, 1997).

관련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구 및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 특성, 가족 특성 및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조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하였다. 한국교육신문사에서 ‘한국교육연감 1997년판’의 별책으로 발행한 ‘한국교육명부’에 수록된 전국 중·고등학교의 명칭과 주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다. 도시 지역의 자료는 서울에서 수집하기로 하여 강남지역에서 2개 중학교와 2개 일반고교, 강북지역에서 역시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를 비확률 표집으로 추출하였다. 또한 학교유형에 따라 폭력경험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 실업계 고교 2개교를 편의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농촌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지역에서 군단위를 선정한 후 각 군에서 1개 중학교씩 선정하여 4개 중학교, 그리고 같은 과정을 거쳐 4개 고등학교를 조사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각 1학교씩 2개교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과 농촌을 합하여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2개교의 총 20개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중학교에서는 1, 2, 3학년 각 학년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등학교는 3학년은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1, 2학년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민감한 주제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학교, 지역에 대한 익명성을 여러 단계에 걸쳐 강조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1998년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1,820부를 발송하여 1,737부가 회수되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SPSS WIN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교차표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폭력발생 실태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가정폭력 조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척도인 Strauss(1979)의 CTS(Conflict Tactics Scale)척도를 한국 사회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자녀의 부모폭력과 그 부모가 행하는 자녀폭력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각각의 경우 신체적 폭력 4문항을 측정하였다. 발로 차거나 손으로 몸을 때리는 행동이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 즉 경중 신체 폭력 3문항과 몽둥이, 혁대 등의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즉, 중중 신체 폭력 1문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경험하였는지 여부와 정도를 질문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는 가족학 관련 전공자들에 의한 안면타당도로 검증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alpha=0.81$ 이다.

3.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응답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737명 중 59.4%가 서울지역, 그리고 40.6%가 농촌지역의 학생으로, 중학생이 49.8%, 고등학생이 50.2%에 달한다. 고등학생 중 일반고 학생은 60.5%, 실업고생은 39.5%에 해당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약간 더 많으며, 부모의 교육수준 모두 고졸, 중졸이하, 대졸이상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부모의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의 자녀가 8.2%에 이른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1737)

변수	구분	빈도	비율(%)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지역	서울	1032	59.4	가족구조	편부모가족	143	8.2
	농촌	705	40.6		부부가족	1594	91.8
연령	중학생	866	49.8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517	30.8
	고등학생	870	50.2		고졸	781	46.5
					대졸이상	379	22.6
성	남학생	951	54.7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723	43.1
	여학생	785	45.3		고졸	769	45.8
					대졸이상	185	11.0
고등학교 형태	일반고	526	60.5				
	실업고	344	39.5				

IV. 조사 결과

1.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 실태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 경험유무와 그 정도를 질문하였다.

표 2 : 폭력 유형별 청소년의 부모폭력의 발생 정도(N=1737)

폭력유형	지난 1년동안 발생률				
	1~2 번	3 ~ 4번	5번 이상	계	
신체적 폭력*				86 (5.0)	
경증 폭력	밀치거나 잡고 흔들음	63 (3.6)	5 (0.3)	7 (0.4)	75 (4.3)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림	14 (0.8)	3 (0.2)	3 (0.2)	20 (1.2)
중증 폭력	물건을 던지거나 부숨	9 (0.5)	6 (0.3)	4 (0.2)	19 (1.1)
	몽둥이, 혁대 등으로 때림	1 (0.1)	3 (0.2)	3 (0.2)	7 (0.5)

() 안의 숫자는 비율임.

* : 가벼운 폭력, 심한 폭력중 어느 한가지라도 있는 경우임.

표 2에 의하면, 5%에 달하는 86명의 응답학생이 지난 1년간 어떠한 형태로든 지 적어도 한 가지 폭력행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75명(4.3%)이 지난 1년간 부모를 밀치고 잡고 흔들었던 적이 적어도 1번 이상 있으며, 20명(1.2%)은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린 경험이 있고, 19명(1.1%)은 부모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모를 밀치거나 흔든 적이 있다는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몽둥이나 혁대 등의 다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학생도 7명이 있었다.

전국단위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재규(1995)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8.9%가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신체적 폭력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199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체적 폭력율은 2.8%, 어머니에 대한 폭력율은 6.5%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 및 대만에서 행해진 실증조사와 비교해 보면, Peek 등(1985)은 청소년의 7-11%가 매년 부모 어느 한쪽을 구타하였으며, 대만(1997)의 조사에서는 중학생이 부모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는 폭력행사 비율이 4%, 물건을 부수는 행위가

2-5%, 부모에게 총칼을 사용한 경우는 1%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최근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조사 및 서구 및 대만 조사에 비해 약간 낮은 빈도를 보인다. 이들 조사간의 차이는 아마도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듯하다.

2. 청소년의 부모폭력과 가정내 다른 폭력유형과의 관련성

폭력의 학습효과 및 세대간 전이현상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과 가정내 존재하는 다른 유형의 폭력 중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 및 부모간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 가정내 폭력에 따른 부모폭력 발생도

		부모→청소년폭력		$\chi^2=$	부모간 폭력		$\chi^2=$	
		없음 (n=1190)	있음 (n=547)		없음 (n=1035)	있음 (n=673)		
부모에 대한 폭력	없음	1162 (97.6)	489 (89.4)	54.20***	없음	1005 (97.1)	618 (91.8)	23.98***
	있음	28 (2.4)	58 (10.6)		있음	30 (2.9)	55 (8.2)	

* : $p < 0.05$, ** : $p < 0.01$, *** : $p < 0.001$

표 3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때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31.5%(n=547)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은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폭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타경험이 있는 청소년(10.6%)들이 없는 청소년(2.4%)들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폭행을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구 및 한국의 여러 선행 연구(김재엽, 1999; Kratcoski, 1984)결과와 일치하고 있어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결국 부모에 대한 폭력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부모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도 전체 응답자의 39.4%(n=673)의 비율을 보였다. 부모간 폭력관찰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부모가 싸우며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관찰한 학생(8.2%)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2.9%)들 보다 부모에 대한 폭행을 많이 하였다. 서구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하는 것을 보고 자란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머니를 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Cornell & Gelles, 1982), 아들들은 아버지의 폭력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증오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학습하여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부부간에 폭력이 있는 가정일 수록 자녀도 부모에게 폭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3.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영향 미치는 변인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지난 1년간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의 분포가 매우 편포되었을때 OLS 회귀분석을 사용할 경우 오차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위배하게 되어 유의성 검정이 타당치 못하게 되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ldrich & Nelson, 1984). 지난 1년간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0(전체의 95%),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폭력한 경우는 1(5.0%)로 이분화하였다.

표 4: 로지스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변 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청소년의 성	여성=0/남성=1	
	청소년의 연령	응답자의 나이	15.43 1.59
	청소년의 결석정도	결석하지 않음=0/자주 결석함=1	
	정학경험	경험없음=0/있음=1	
	성적저하	성적의 변화없음=0/저하됨=1	
	이성친구 존재	없음=0/있음=1	
	가족구조	부부가족=0/편부모가족=1	
	경제적 어려움	곤란없는 경우=0/있는 경우=1	
	부모의 불화	불화가 자주없는 경우=0/ 자주 있는 경우=1	
	부모의 정서적지지	관심을 갖고 격려하지않는경우=0/ 격려하는경우=1	
	아버지의 음주	지나치지 않음=0/지나친 음주=1	
	부모간 폭력	전혀아니다=0, 거의아니다=1, 가끔그렇다=2, 자주그렇다=3, 항상그렇다=4	0.61 0.87
	부모→ 청소년 폭력	폭력없는 경우=0/폭력한 경우=1	
종속변수	청소년→ 부모폭력	폭력없는경우=0/부모는모를 폭력한 경우=1	

독립변수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및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청소년 특성 6개

변수, 가족의 구조적 특성 및 관계적 특성 5개 변수, 그리고 부모간 폭력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의 폭력특성 2개 변수로 총 13개 변수이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중속변수와 독립변수들간의 관계에 대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시도할 때, 모델 1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부모폭력과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의 3가지 모델에서는 청소년 행동특성(모델 2), 가족특성(모델 3) 및 폭력유형(모델 4)을 측정된 변수들을 첨가하여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특성과 부모폭력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모델 5에서 모든 변수들이 들어가 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앞의 개별모델에서 발견된 관계가 유지되는가를 살펴보았다. 로짓모델의 통계치로 로지스틱 계수 및 계수의 지수값을 제시하였는데, 계수의 지수값odds ratio이 1보다 큰 것은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1보다 작은 것은 폭력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계수 (B)	지수값 EXP (B)	계수 (B)	지수값 EXP (B)						
인구학적 특성	연령	0.32**	1.37	0.23**	1.26	0.27**	1.30	0.27**	1.36	0.26**	1.30
	성	-0.35	0.70	-0.29	0.75	-0.30	0.74	-0.32	0.66	-0.37	0.69
청소년 행동 특성	결석경도			0.77	2.17					0.38	1.46
	정학경험			1.00*	2.72					0.98**	2.41
	성적저하			0.91**	2.48					0.63*	1.88
	이성친구 존재			0.25	1.28					0.01	1.00
가족 특성	가족구조					0.83*	2.28			0.34	1.41
	경제적 어려움					-0.08	0.92			-0.21	0.82
	부모의 정서적지지					-1.02**	0.36			-0.57	0.56
	부모의 불화					1.21**	3.35			0.73**	2.08
	아버지의 음주상태					0.22	1.25			0.52	1.02
폭력 유형	부모간							0.43**	1.53	0.24*	1.28
	부모→청소년							1.54**	4.70	1.29**	3.62
모델 χ^2		24.18**		63.92**		77.50**		92.24**		124.56**	

* : $p < 0.05$

** : $p < 0.01$

표 5의 모델 1에 의하면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의 모델 2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구학적 변수에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는 행동특성을 첨가한 결과, 청소년의 행동특성 역시 부모에 대한 폭력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정학 등 경고처분의 경험이 있을수록, 지난 1년간 학업성적의 저하를 경험할

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폭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학교 부적응 등의 스트레스가 부모폭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Agnew와 Huguley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모델 1에 가족특성 효과가 들어간 후(모델 3), 청소년 연령의 영향은 여전히면서 가족구조,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부모의 불화가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즉, 부부가족에 비해 편부가족에서, 부모의 불화가 잦으며, 그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폭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행에 편부가족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같은 결과는 편부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에 관해 더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서구의 선행연구(Harbin & Madden, 1979)에서는 편모가족에서 유일한 남성으로,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에 주의를 요한 바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모델 4에 의하면 2가지 폭력유형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령 및 성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간 서로 폭력을 사용해 싸우는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매 맞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부모를 구타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모델 5), 가족특성 중 가족구조와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할 확률은 연령이 한 살 많아질수록 1.30배 높아져 폭력 가능성이 30% 증가하며, 학교에서 정확 등 경험이 있는 학생은 경험 없는 학생에 비해 부모를 구타할 확률이 2.41배 증가하고, 학생의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8% 높아진다. 또, 부모의 불화가 자주 있는 경우 불화가 없는 경우보다 폭력사용의 확률이 2.08배 높아진다. 한편, 부모끼리 사용하는 폭력정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부모에 대한 폭력가능성이 28% 증가하며,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폭력 가능성이 3.62배 높아진다.

이상의 독립변수 중에서 부모로부터 매 맞는 경험이 부모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현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가정, 특히 부모에게 매맞고 자라는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 이 두 변수 간 유의한 관련을 나타낸 폭력의 학습효과, 세대전이에 대한 가설이 우리나라 청소년 가정에서도 적용됨을 실증자료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에 관계되는 요인들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의 수집은 전국의 20개 중·고등학교에서 표집한 1,737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부모를 밀치고 잡고 흔들거나 물건을 부수고 던지는 폭력행동, 혹은 몽둥이 등을 사용하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었다. 부모에 대한 자녀폭력은 다른 형태의 가정폭력에 비하여 가장 금기시되는 유형이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 실제보다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5%에 달하는 학생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더욱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이 비단 비행집단에 합류된 청소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서도 발생한다는 이 같은 사실은 일선학교 수준에서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하겠다.

자료의 분석 결과,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타행동의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욕구좌절 등에 대하여 바람직한 분노표출 및 분노 조절방법 등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부모와의 대화나 갈등해결의 기술, 폭력의 역기능성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가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신에 대한 자아탐구 및 자기육구가 증대되는 발달시기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빗나간 모습을 발견하고 현명히 대처하는 기술 습득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청소년에 의한 부모폭력의 가능성에 학교 부적응, 부모의 불화 및 폭력 정도, 청소년에 대한 신체적 처벌 유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교 부적응 즉, 정학 또는 학업성적 저하를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부모에게 구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부가되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청소년 당사자의 행동특성이 폭력발생에 중요함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적응과 학습문제, 이성친구 교체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가 요구되며,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긴장완화 훈련 등 임상 프로그램이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리라 판단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 일탈행동과 폭력과의 관계는 인과관계의 방향성이 확실

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추후 다방향 모형에 근거한 분석이나 종단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불화정도 및 그들간 폭력에 따라 청소년들이 부모를 폭행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행한 폭력정도와 부모에 대한 폭력간에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폭력이 생애과정을 거치면서 상이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훗날까지 연관되어 상호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여야겠다. 또한 청소년들의 폭력경험 및 관찰과 그들이 행사한 폭력과의 밀접한 관련에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폭력을 실증조사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그런 면에서 탐색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남에게 밝히기 싫은 민감한 주제의 질문내용을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조사방법의 문제가 따르며, 부모의 성에 따른 폭력 발생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수집과 대표성 있는 표집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에 대한 국내의 실증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차이가 나는 외국의 선행연구로부터 폭력 발생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청소년기 자녀들에 의해 행사되는 폭력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기획 및 실시가 이루어지는 연구, 폭력행사자인 청소년뿐 아니라 폭력을 당한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연구 그리고 심층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기환(1995). 결혼가정에서의 청소년학대 및 방임실태. 14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김재엽(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3호, pp. 1-14.
- 이시형(1997). 입장에서 본 청소년의 가정내 폭력. 동아시아권의 가정내 청소년폭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주최 청소년 폭력 관련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이재규(1995). 패륜가족과 패륜아. 제9회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 청소년대화의 광장, pp. 57-137.
- 전희정·지영숙(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관한 연구-가정환경과 관련하여.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6호, pp. 123-137.

- 한경혜·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대 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2호, pp. 27-39.
- Agnew, R. & Huguley, S.(1989).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51*, pp. 699-711.
- Bittman, M., & Pixley, J.(1997). *The double life of the family*. Allen & Unwin.
- Chales, A. V.(1986). Physically abused paren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4*, pp. 343-355.
- Cornell, C. P. & Gelles, R. J.(1982). Adolescent to parent violenc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Vol. 15*, pp. 8-14.
- Curtis(1963). Violence breeds violence, 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20*, pp. 386-387.
- Foreman, S. & Dallos, R.(1993). Domestic violence. In, R. Dallos & E. Loughlin(Eds.) *Social problems and the Family*. Thousand Oaks : Sage.
- Gelles, R.J.(1994). Family violence, abuse, and neglect. In, P.C. McKenry & S.J. Price(Eds.) *Families and change*. Thousand Oaks: Sage
- Gelles, R.J.(1980). Violence in the family: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pp. 873-885.
- Harbin, H.T., & Madden, D.J.(1979). Battered parents: A new syndrom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6*, pp. 1288-1291.
- Herzberger, S.D.(1990). The Cyclical pattern of child abus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3, No. 5*, pp. 529-545.
- Herzberger, S.D.(1996). *Violence within the famil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Hotaling, G.T., & Strauss, M.A.(1989). Intrafamily violence, crime and violence outside the family. In L. Ohlin & M.Tiny(Eds.) *Family violenc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Kalmuss, D.(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6*, pp. 11-19.
- Kaufman, J., & Zigler, E.(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 186-192.
- Kratcoski, P. C.(1984). Perspectives on intrafamily violence. *Human Relations, Vol. 37, No. 6*, pp. 443-454.
- Newberger & De Vos(1988). Abuse and victimization: A life -span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8, No. 4*, pp. 505-511.
- Pagelow, M.D.(1989).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riminal abuse of other family members. In, L. Ohlin & M.Tiny(Eds.) *Family violence*. Chicago:

- Chicago University Press.
- Peek, C. W. & Kidwell, J. S. (1985). Teenage violence toward parents: A neglected dimension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7, pp. 1051-1058.
- Soong, W.T.(1997).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n Taiwan. '동아시아권의 가정 내 청소년 폭력' 사회정신건강 연구소 주최. 청소년 폭력 관련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Straus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1, pp. 75-88.
- Strauss, M. & Gelles, R.(1986).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48, pp. 465-479.
- Widom, C. S.(1989).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Vol. 244, pp. 160-166.

ABSTRACT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in Family

Kim, Young-He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prevalence of adolescent violence toward parents and to explore the predictors based on a data gathered from a sample of adolescents. A total of 1,737 students attending high schools in Seoul and rural areas complete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 that 5% of the respondents physically assault their father and/or mother for the past year.

A logistic analysis shows that the age of adolescents, the experience of drop out and the changes in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of youth-to-parent violence. The probability of youth violence against parents increases as the ages of respondents increase. When adolescent experiences a significant drop in school achievement, the probability of adolescent-to-parent violence increases.

The results also tell that the adolescents are more likely to assault their parents when their parents have frequent marital conflicts and when the parents use violence between themselves. Furthermore, the probability of this violence is found large when child abuse occurs.

*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Hankyong National University